



“음악은 공감...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싶어”

악동뮤지션 새 앨범 '사춘기 상(上)퀵' 발표
음원차트 1위 '울킬'에 수록곡 10위 '줄세우기'

“오빠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라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 말을 안 해요. 아빠가 ‘왜 그랬냐’고 추궁해도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하니가 ‘반항하는구나’ 오해하고 아빠랑 충돌도 있어서 저는 말리느라 고래 다통에 새우 등 터졌죠. (웃음)” (수현)

11일 서울 마포구 회우정로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악동뮤지션이 자신들의 사춘기에 대한 기억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악동뮤지션은 스무 살 오빠 이찬혁과 열일곱 살의 여동생 이수현으로 구성된 친남매 듀오로 지난 2012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2’를 통해 데뷔했다.

동생 수현은 이어 “저는 딱히 반항한 적도 없고 조용히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중2병’이라고 할까? 좀 덜덜이 듣고 그런 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뭐랄까 겸손하지 못한 때가 있구나 보다. 오빠가 그걸 알아채서 잔소리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맞는 말 같다”고 다시 오빠를 추어올렸다.

악동뮤지션은 지난 4일 새 앨범 '사춘기(思春記) 상(上)퀵'을 발표하며 가요계로 컴백했다. 이미 새 앨범은 음원차트 1위를 '울킬' 했고, 수록곡들도 차트 10위권에 '줄 세우기'를 했다.

“1집 앨범 냈을 때 굉장한 아이 같고 어린 모습들만 보여드려 이번 '사춘기'에서는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중간 단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춘기'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찬혁)

10대만의 세상을 보는 눈, 특유의 관찰력과 기발한 표현력은 이번 앨범 수록곡 '사람들이 움직이는

계'에서도 빛을 발한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계'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에 대해 노래한 곡으로 악동뮤지션다운 기발한 발상과 순수한 매력에 물씬 풍긴다.

찬혁은 “1집 무대에 설 때 아쉬웠던 것은 노래 가운데 아주 신나는 곡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이번에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함께 뭉 수 있는 곡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이다움만이 악동뮤지션이 지닌 매력의 전부가 아니다. 풋풋함과 상큼함을 유지하면서도 '사춘기'라는 앨범명처럼 악동뮤지션의 고민과 사색이, 그리고 한층 성숙한 매력이 돋보인다.

이번 음반 콘셉트인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닌, '생각에 봄이 오는 시기', '생각의 사춘기'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더블 타이틀곡 '리-바이(RE-BYE)'는 반복되는 크고 작은 이별 속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한 노래다. 감각적인 제스 팸으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돋보이는 곡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계'와는 상반된 매력을 발산한다.

이 밖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남녀의 설렘을 사랑스럽게 표현한 '새삼스럽게 왜', 지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인 '초콜릿가', 작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혼자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의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에 대해 노래한 '주변인' 등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감성을 다룬 노래들을 앨범에 담았다.

찬혁은 '주변인'의 가사에 '외계인'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된 사연도 밝혔다. “‘외계인’이란 말은 사

춘기 때 아버지가 제게 한 말이예요.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다. 무슨 생각으로 사냐고. (웃음) 그땐 그 말이 싫었죠. 저도 아빠 아들이고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그 심정을 담아 작사하게 됐죠.”

아울러 '사춘기 하권'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찬혁은 “지금 하권도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인데 상권이 나오고 나서 피드백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생각”이라며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발라드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수현은 또 “하권은 올해 안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찬혁은 자신이 음악에 대해 갖는 생각도 드러냈다. “저는 음악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만약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다면 그걸로 메시지를 찾을 거예요. 건방지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꿈이 음악이 아니라 메시지에요. 음악은 하나의 매개체이자 통로라고 생각해요.”

수현은 악동뮤지션의 메시지는 힐링과 공감이라고 덧붙였다. 수현은 “1집부터 힐링과 공감을 가장 중요시했다”며 “공감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다. 다양한 연령층에 공감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찬혁은 내년 입대를 계획하고 있다. 수현은 오빠의 입대 후 생길 악동뮤지션의 공백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안 나왔는데, 집에만 있지는 않겠지요?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 사장님께 매일 전화를 해서라도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합뉴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수원, 강성훈, 은지원, 김재덕, 이재진.

젝스키스, YG와 계약 체결 16년만에 컴백 꿈 이룬다

다섯 멤버와 계약... 제외된 고지용, 공연·음반 참여 가능성

1990년대 인기그룹젝스키스가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16년 만에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YG는 11일 “오늘 오전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 등 다섯 멤버와 계약을 맺었다”며 “사업가로 변신한 고지용은 개인 사정상 계약하지 못했지만 공연과 음반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젝스키스는 1997년 1집 ‘학원별곡’으로 데뷔해 H.O.T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 5월 공식 해체까지 ‘학원별곡’, ‘폼생폼사’, ‘연정’, ‘커피’, ‘예감’ 등을 히트시키며 소녀 팬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다.

해체 이후 16년간 각자의 삶을 산 멤버들은 지난달 MBC TV ‘무한도전’에서 마련한 케릴라 공연으로 재결성해 화제가 됐다. 연예계를 떠난 고지용까지 여섯 멤버가 완전체로 만난 모습에 많은 팬이 눈물을 흘렸다. 방송 이후에는 이들의 과거 곡이 음원과 가요 프로그램 차트에 다시 진입하기도 했다.

젝스키스의 YG 행은 이미 예견됐다. 멤버 이재진의 매형인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멤버들과 만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YG는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직접 나서젝스키스를 영입한 만큼 팀의 새로운 행보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인생 우리말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종화) (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 12	05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 (재)	4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킹특선 (보물섬) 55 가요무대 가정의 달 기획 가요무대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탐지력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세상발전 유레카 55 닥터365
3	30 우리들의 공교시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뉴스	00 애슬론 풋볼 30 SBS 뉴스 피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가정의 달 기획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력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베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국경 넘어, 집으로 가는 길)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판타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농촌에서 길을 찾다	10 해피 투게더	10 특집 꿈꾸니까 청춘이다	10 자기야
12	40 넷워킹 문화특선 올댓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한민족의 소리 스페셜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 생활 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박경신의 언어 토르티야와 키위스 그린 샐러드>
05:30 건강한 아침	11:00 세계테마기행 (재)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 이란>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세계의 폭포 빅토리아폭포>	11:40 한국기행
06:10 세계의 눈 <북미 대륙의 탄생-땅>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지파이터스(재)	12:10 통일의 길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0 역사채널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08:45 방귀대장 뽀롱이(재)	13:50 이맘 스페이스 정글
09:00 곰디와 친구들	14:00 코코몽2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9:40 달라졌어요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오늘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순수의 대지, 베트남 4부 용이 지켜준 땅>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21:30 한국기행 <세상의 끝 고원을 가다>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순수의 대지, 조선 잠행록 3부 마담의 전쟁-조선 이훈백서>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다문화 교류열전 <한국의 산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24:05 역사채널 8(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2일(음 4월 6일 甲午)
子	48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60년생 아무리 답답해도 나서지 말고 참자고 있는 편이 낫다. 72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하리라. 84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14, 30	42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54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근축스럽게 할 수다. 66년생 분명히 이행하여야 향후의 처세에 지장이 없으리라. 78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56, 16
丑	49년생 미래의 행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나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61년생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73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85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91, 19	43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55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7년생 폐단을 제거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9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82, 47
寅	50년생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2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74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86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6, 47	44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56년생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 68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80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6, 12
卯	51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63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75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반듯함이 검토 하자. 87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52, 07	45년생 순간적인 성급함이 결정적으로 손해를 야기하리라. 57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69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81년생 굶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43, 57
辰	40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52년생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니라. 64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76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88년생 생 영모든 모른 채 따라 가리라. 행운의 숫자 : 74, 63	46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58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70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82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15
巳	41년생 승동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53년생 가볍게 주고 받는 말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65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다. 89년생 설계를 잘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7, 88	47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59년생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71년생 노파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83년생 지나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17